

“한국불교 바로 서려면 초기불교로 돌아가야”

한국테라와다불교 열린법석...12월 14일까지 대원정사서 열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초기불교의 이론과 수행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테라와다불교는 서울 대원정사 명상연구원에서 12월 14일까지 첫째·셋째 주 금요일 오후 2~4시 '테라와다 열린법석'을 통해 테라와다 교리에 대해 강연한다. 둘째·넷째 주 오후 2~5시에는 수행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3월 16일 경주 마하보디선원장 나나로까 스님(한국테라와다불교 운영위원장)은 초기불교에 대해 강연했다. 스님은 현대인들이 왜 초기불교를 알고 익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절대적인 신은 없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神)을 지극히 높고 전지전능하며 온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로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절대적인 신에게 영생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들과 다릅니다.

부처님은 고(苦)를 통해 중생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과학은 현재 불교를 인간 심리와 접목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인간의 내면과 의식, 마음을 파헤쳐 보셨습니다.

불교는 감정이나 정서에 호소하는 믿음보다 '알'을 중요시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法)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자가 아닌 오직 진리에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신 절대자 창조자 조물주 등을 부정합니다. 또 인격신을 부정합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오직 '알'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닫다'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 거짓과 참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경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종교는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되는 종교입니다. 절대자·창조자 등은 인간이 설정해 놓은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절대자·창조자가 있다고 봅시다. 창조

자는 반드시 전지전능 해야만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창조자의 성립 육구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자가 창조할 것을 결심하지 않는다면 그 전능함을 잃게 됩니다. 창조는 무언가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창조한다는 것은 곧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은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경지에 있어야만 합니다. 전능한 자는 아무것도 필요도 모순이고, 하지 않아도 모순입니다. 이는 신이라는 명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통한 논리적 장난에 의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불교는 무(無)에서 유(有)가 절대 창출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더미에 벌레가 생겼다고 짐사디. 이것은 벌레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됐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의해 정도·양산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죽음을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은 존재가 비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립니다.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면 무한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을 가진 주의는 절대주의적 사고입니다. 이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불교는 인간의 문제를 오로지 신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자립종교입니다. 부처는 자신을 피난처, 즉 섬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또는 등불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법을 피난처로 삼고, 삶을 절대적인 고로 봐야 합니다.

10바라밀로 이뤄진 불교

어떤 것이 운명에서 불행을 결정할까요. 답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이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기에 때문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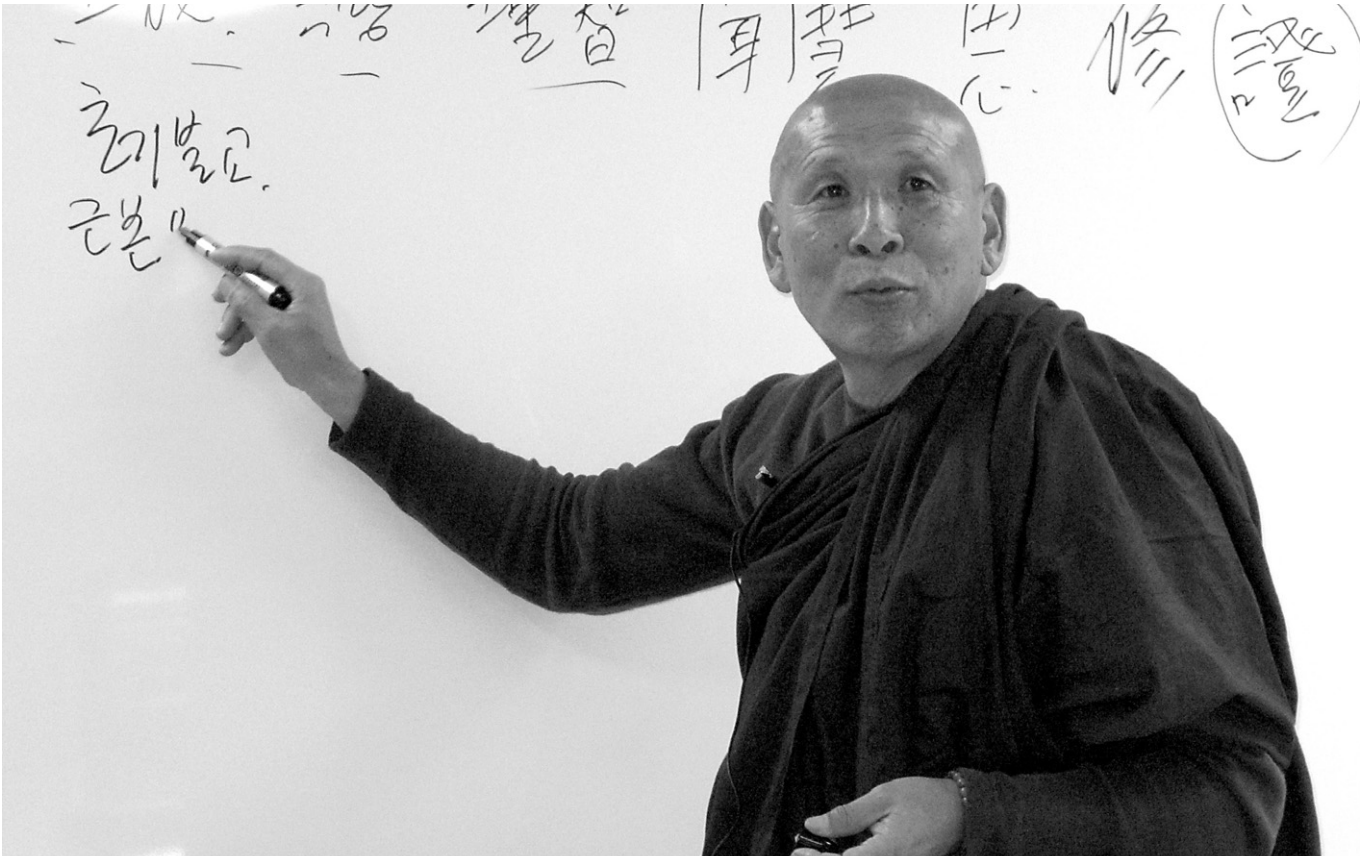
불교에서 말하는 '알'과 상대되는 단어는 '마음'입니다. 믿음과 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지(理智), 감성(감정), 의지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이 3가지 중에서 감성(감정)을 중요시합니다. 감성을 대 표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신념이 됩니다. 신념이 참을 보지 못하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신념은 때론 진리가 될 수 있겠지만, 진리와 관계가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참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참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행복은 지속가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명백한 진실로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알'이라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다'와 '나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일 그것을 믿는 마음이 무의식까지 뻗어있다면 '믿는다'가 아니라 '안다'로 표현해야 합니다. '안다'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안다'를 표현한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과 알은 완벽히 다른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도 믿음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맹목적 믿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믿음만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법을 이해한 다음 수행을 하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불교의 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지혜증득을 목표로 합니다. 지혜증득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언어를 통해 알을 이해하기, 둘째 지혜를 바탕으로 알을 알기, 셋째 몸과 마음의 경험을 통해 알을 알기, 넷째 본질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증득은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론과 과학이며 둘째는 내면의 지혜를 개발하는 것, 셋째는 함께하는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



경주 마하보디선원장 나나로까 스님은 불교를 현대인들이 알아야 할 과학적인 종교라고 설명했다.

‘법’을 의지치로 삼는 불교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행복 초기불교는 불교의 근본뿌리 불교는 논리적 과학적인 종교

바라밀로 해결됩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초기불교를 알아야 하는가

초기경전인 <빠알리 니까야>에서는 '사람들에게 얻은 지식' '전통' '소문' '경전' 등에 쓰여 있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일단 그대로 따르기보다 우선 의심해 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의심한 뒤,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의심을 끊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초기불교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기불교는 근본뿌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뿌리를 무시한 역사는 존재의 근원까지 흔들리고 맙니다.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이론은 삶 자체가 아닙니다. 이론은 응용되어야 합니다. 근간의 뿌리를 모르면 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초기불교를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입니다. 불교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알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본질 무상 무아 고연기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성제(四聖諦)는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성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기불교를 통해서 본말이 어떻게 전도됐고, 어떤 것을 참고해 판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불교는 현대 과학적 사고와 융화할 수 있는 해석적 방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기불교는 철두철미한 과학적 이론이 성립합니다. 부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본체를 부정하는 이론을 전개했을까요. 바로 해체, 분석을 통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는 그냥 보기에 단순한 도자기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무수한 존재들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이 포함되어 있고, 흙 속에는 수많은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해체를 하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으로 인간을 들여다 봤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초기불교는 이런 방법을 철두철미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불교의 이런 논리에 부정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초기불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기불교는 가장 오래된 경전인 <니까야>등 주석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논리는 이론이 바탕 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문헌이 필요합니다. 문헌의 가장 오래된 형식이 바로 초기불교에 있습니다. 초기경전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전혀 가감 없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들이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불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초기불교의 대한 이해는 자주불교의 이해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한국불교의 특색, 자존감, 본질을 현대적으로 어필하고 규명하려면 초기불교를 익혀 근본적인 논리가 전개돼야 합니다. 한국불교 대표 스님 가운데 단연 으뜸은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의 논리와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간은 초기불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불교의 자주성을 구현해내는 방법입니다.

한국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요즘 한국불교에 출가자가 점차 줄어들어 불자들은 불교의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효 스님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출가하는 스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머지않아 이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근본으로 돌아가 초기불교를 익히고 현대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념 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말기암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 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복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 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시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물어두고 갈순없어 이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사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 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사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나 행복을 원하거나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오.

**천의선도 태증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